



濁流清論

제16호 2011년 10월 4일(화)

발행인 : 강명구 / 편집 : 편집위원

<알려드립니다>

◇ 제39차 대의원회 소집

일시: 2011년10/10 12:00

장소: 율곡관 204호 회의실

안건: 신임의장 인사 및

가을학기 업무 논의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lisani@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 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 차 >

교수회 의장 취임 인사말	1
교수회 의장 이임 인사말	4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7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 입학처장	7
소 식	11

편집위원회 : 이재호(편집책임), 구형건, 김상배, 김혜선, 노명우, 정경훈.

교수회 의장 취임 인사말

교수회 의장직을 맡으며 해본 어떤 생각

교수회 의장 강명구

은퇴하고 좀 한가해지면 한 번 프랑스 언어를 좀 배워 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 지오노(Jean Giono)라는 프랑스 소설가의 얇은 단편 <나무를 심은 사람> (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을 단숨에 읽고 나서 해 본 생각이었습니다. 이 단편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소개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한 인격과 만난 것이다.”

(중략) 20세기 초엽, 메마르고 황량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던 여행자는 한 늙은 양치기를 만난다. 황량한 벌판의 타는 목마름을 적서준 늙은 양치기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 여행자는 이해하기 힘든 광경을 목도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기는 조그만 도토리 자루를 가지고 와서 쉽사리 가늠하기 힘든 작업을 시작한다.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는 백 개의 도토리를 세어 조심스레 모아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의 문은 풀린다. 늙은 양치기는 풀밭에 양을 풀어놓고 목자(牧者)의 지팡이 대신 가지고 온 쇠막대기를 땅에 박아 구멍을 내고 그 곳에 도토리를 묻었다. “당신의 땅이 어디까지입니까?”라는 여행자의 세속적 질문에 “이곳이 누구의 땅인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늙은 양치기는 답하였다. 여행자의 끈질긴 질문에 늙은 양치기는 3년 전부터 이 곳 황무지에 이러한 방법으로 홀로 십 만개의 도토리를 심어 그 중 2만개가 싹을 틔웠고 아마도 그 중에서 만 그루 정도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세월이 흘러 여행자가 1차 대전에 참전하고 5년 만에 돌아와 본 그곳에서 고독한 늙은 양치기는 아직도 계속하여 나무를 심고 있었고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떡갈나무 숲이 융단처럼 산등성이를 덮고 있었다. 계곡은 물이 흐르고 땅은 기름져가고 있었으며 성정(性情)이 거칠었던 이곳 사람들은 이제 온화한 웃음을 띄게 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나무심기는 계속되었고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실명(實名)의 양치기가 1947년 89세를 일기로 바농의 한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이 세상의 소풍을 마쳤을 때 프로방스는 더 이상 타는 목마름의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다. 이제 이 곳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골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것은 아마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닌가 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여러 나라에서 만화로, 이야기로,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으로 각색하여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탁류청론> 편집책임자의 원고 청탁을 받고 학술논문 구상하듯 논리의 뼈대를 세우고 사실관계로 옷을 입히고 여기에 제 주장을 색칠까지 해 놓았다가 미련 없이 부수고 대신 제 마음을 엮어 장 지오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의장 후보자 피추천 소견문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이면 저를 뽑아주시고, 뽑아 놓으셨다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직을 사임할 터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나를 비장한(?) 투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대 교수 백 분이라면 아흔 세 분께서 그러마고 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명구 드림.

교수회 의장 이임 인사말

부끄러운 얘기

아주대 명예교수, 전 교수회 의장 김철환

자신의 성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후회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 둘 뿐이겠는가. 나도 예외는 아니다. 평소 세상만사 돌아가는 형편을 넉넉한 아량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을 제대로 보듬지도 못한 주제라서 나는 정년하면서 “화내지 말고” “곱게 늙어야 하겠다”는 소망을 가슴속에 심어 봤다.

한 참 일하고 있을 때야 어찌 사람이 흠이 없겠는가? 그러나 일에서 손 떼고 화백(화려한 백수)으로 살아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를 낸다면 자신도 피곤하겠지만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쓰럽겠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듣는 능력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아마도 좋은 것만 듣고, 순하게 말하라는 자연의 심오한 뜻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곱게 늙어야 하는” 나의 소망을, “순하게 말하라”는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경우라면 왕왕 끼어들게 마련인 회고적 정서에 맞추어 글을 쓰게 되면서 나타나는 처연함이 경계된다.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지난날의 안타까움만 되씹는다면. 얼마나 지겹겠는가, 지난날의 아쉬움만 되뇌는다면.

나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인사동의 전시공간에서 “도처에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래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풀과 나무와 꽃이 흐드러진 들과 산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느꼈다.

미래는 축복이라는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를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두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국 대학의 퇴행이 지속되면서 영악한 속물이나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자명하다. 이제까지는 이들이 상식 이하의 “우스꽝스러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괴물스러운 고약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이미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국가에 출현한 괴물들이 강을 도륙내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터전에서도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의 몰상식과 몰염치와 무능함이 학문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칼 폴리니는 “경제에 휘둘리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이 인간의 역사를 만든다”고 했다. 나는 폴리니의 말을 패래디 하고자 한다. “아주대학교의 역사는 재단에 휘둘리는 구성원들의 자기보호운동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될 거라는 냉정한 비판 속에서 거리를 두었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념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 없음이 문제”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후기: 저는 지난 8월 22일 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날 저는 지난 10여 년간 구성원들의 양가주 망 부채를 안타깝고 마땅찮아 했던 내 생각이 눈 녹듯 사라지는 강한 경험을 했습니다. 격렬하게 위로받는 낯선 경험이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가만 생각하니 이 것이 내가 몸담고 있던 터전의 진면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면 곱게 늙지 못하고, 험하게 말할지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썼습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이번 호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젊은(?)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살펴보고자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는 학교에 대한, 교수 사회에 대한, 혹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문제 의식 등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막상 교수님들은 저희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므로써 저희의 소견이 좁았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기고가 많은 것을 보아 아직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들을 편안히 해 주시지는 못하였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 향후 타류청론이 주니어 교수와 시니어 교수들의 이해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각 단과대학 별로 한 분 이상의 글을 신고자 원고 의뢰를 드렸습시다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누락되신 단과대학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대에서 교수로 지내기의 빛과 그늘

아주대에서 교수로 지내기 시작한지 9년이 지났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주대 인문대의 조교수, 부교수로 교육, 연구, 봉사를 하면서, 보고, 부딪히고, 깨닫고, 꿈꾼 것들은 실로 다채롭지만, 여기서는 그 경험의 몇 가지 빛과 그림자를 적어 보고자 한다.

아주대 캠퍼스를 비추는 햇살은 좋다. 필자의 연구실이 있고, 주로 강의하게 되는 다산관 뒤에는, 요즘 광고테크노밸리 개발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숲이 있다. 때로 산책하며, 나무, 풀, 곤충, 새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주대가 내게 준 커다란 선물이다. 양질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특히, 인문학적인 사유와 상상력은 매일 꼭 같은 공간 안에서 무식하게 쪼아 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숲의 존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다. 필자가 가르치는 과목들, 예를 들면, “영미영화의 이해”, “문화콘텐츠와 심리학” 등은 인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수강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성실해서 강의의 재미와 보람을 종종 느낀다. 학생들과 커피 마시거나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또는 연구실에서 개별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과 공부와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사헤일루(sahaylu)” (접속, 공감을 뜻하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말)할 때, 교수로서의 보람과 책임을 느낀다.

필자가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인문대 교수문화이다. 인문대 교수분들은 개성, 전공, 연령, 젠더,

가치관 등이 달라, 어떤 사안을 놓고 때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거의 언제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거의 언제나 일정수준의 인격존중의 윤리적 보편원칙을 지켜왔다. 인문대에서는 보직, 연구성과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갈등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것은 인문대가 권력, 지표에 의해 인간을 규정, 사물화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경쟁원리가 아니라 인간존중의 인문학문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인문학과 인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아주대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경험한 부정적인 그들은 무엇인가? 이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필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당연히 하는 상식을 깨는 일을 힘을 가진 소수가 만들 때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몇 학기 전에 있었던 승진심사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인문대 학장이 승진자격심사규정에 따라 승진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추천한 인문대의 승진 지원자를 인문대의 명문화된 승진자격조건과 다른 새로운 심사기준을 회의에서 구두로 만들어, 이 지원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승진을 앞 둔 인문대 교수들 사이에선 “인문대의 객관적 승진기준을 상당수준 상회하는 업적을 만들어야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승진원칙이 뭐냐,”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원칙이 미리 모든 교수들에게 제시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필자가 보

기에, 승진심사의 기준은 인사위원회가 즉석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연구업적에 대한 기준은 전공에 따라, 예를 들면, 공대기준과 인문대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어느 특정 전공자의 심사기준은 그 해당자가 속한 대학의 객관적, 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공학전문가가 아닌 인문대 교수가 공대교수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신뢰가 가겠는가? 인사위원회는 승진 지원자의 업적물, 학장의 추천에 혹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사위원회가 어느 대학의 승진기준을 통과한 지원자의 업적수준이 낮다고 판단함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지원자를 즉각적 판단에 따라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승진기준을 강화시킬 것을 해당 대학에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 해당 대학은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를 투명한 토론 과정을 통해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 지원자의 승진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교수가 재계약하거나 승진하는 것은 교수 개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인데, 이것이 미리 발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교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교에 대한 신뢰와 사량이 생기며, 이것이 아주대를 키우는 저력이 될 것이다.

아주대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그늘은 회의나 일상의 행정에서 일이 종종 이공계 방식으로 진행,

결정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몇 달 전 학교 도서관에 10년 전에 출판된 인문계 도서의 구입을 신청했는데, 도서관 직원으로부터 출판한지 오래된 책이므로 구입할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이공계에서는 논문 중심으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10년 전에 출판된 책은 무용한지 모르지만, 인문계 책은 몇 십년 전에 출판된 것도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 이것은 상식일텐데, 도서관엔 이 상식이 없었는지, 필자가 메일과 전화로 한 참 설명하고 나서야 도서구입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공계적 지식과 인문사회적 지식이 융합될 때 창의성이 많이 발현된다는 것이 상식화된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분들도 타전공분야의 일을 다루거나 교수를 대할 때 자기분야 중심적 사고와 판단을 잠시 정지하고, 타전공의 세계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다른 전공들간에 존중과 교류와 소통이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질 때, 진정으로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아주대가 되고,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감과 신뢰를 느끼는 멋진 대학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인문대학 정경훈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나는 아주대는 어떠한 질문을 받으면 아주 좋다고 대답한다. 수원의 중심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아주대라 말한다. 아주대는 훌륭한 교직원,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발전하려는 에너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향후 10년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또는 현재 최고의 집단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오랜 기간 미국대학에서 당연히 하였던 사항들이 아주대 부임 이후 수많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교내식당 앞 한쪽 차선을 주차로 막아버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정문 앞 진입로에 주차하여 체증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것을 단속하지 않는 점에도 놀랐었다. 각 건물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고, 공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실습실이 전문 IT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과, 공대 자체의 홍보팀과 웹 마스터가 없는 것에도 놀랐다. 학생들이 일대일 수강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직원(academic advisor)이 없고, 비정규직 조교들이 2년 단위로 학부 및 대학원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 것을 보고 놀

랐다. 교수는 최고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와 각종 서비스는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마인드가 없다는데 더더욱 놀라기도 하였다. 본인이 재직하던 미국대학은 아주대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내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의 안전과 만족감 달성은 학교 운영의 최대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우리는 교내를 지나는 수많은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을 보고 있지만, 아주대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데 희망이 있다.

현재 아주대의 젊은 교수님들은 장차 아주대를 이끌 분들이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큰 꿈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며, 목표들을 이루어갈 계획들이 필

요하며, 매일의 행동들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의식과 자부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아주대생들은 미래의 주역이며, 우리에게는 그들을 잘 교육시킬 막중한 책임이 존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연구실에서 혼자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아주대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예언자들은 한국이 문화, 교육, 의료, 기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류 국가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 한다. K-Pop 등 신한류에 빠진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며, 한국 물건을 사용하고, 한국음식을 즐긴다. 그들은 한국말이 아름답게 들린다고 하며 우리에게 훌륭한 전통과 다양

한 복식, 우수한 문화가 있음을 놀라워한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IT시대에 가장 걸맞은 한글을 만드셨다. 한글은 문자를 칠 때 한자의 21배, 일본 간지의 3배나 쉽고 빠르다고 한다. 많은 외국학생들이 한국대학에서 공부하길 소원하며, 한국회사에서 일하길 원하고, 한국은 꿈속의 나라처럼 아름답다며 동경한다. 어쩌면 우리는 세계의 일등국가가 된다는 운명 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며,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한다.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아주대학이 있고, 이 대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시킬 영광스러운 책임은 젊은 교수님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을.

공과대학 권용진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P. Feynman)의 다음의 일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내가 1940년대에 프린스턴에 있을 때, 고등학문 연구소에 있던 위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재능으로 그 특별한 자리에 뽑혀서 숲 속에 있는 멋진 집을 차지하고, 가르칠 수업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해야 한다. 좋다고?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아무 아이디어도 내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종의 우울증이나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기고, 아무 일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생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진짜 활동과 도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가들과 접촉하지 않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사이언스 북스, 김희봉 옮김, 제 2권 고매한 교수님 중).

필요한 측정 기기를 구매하기가 어려워 손수 만들거나, 마감이 임박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스트레스가 점차 쌓여가던 대학원 시절, 위 책의 일화를 통해 나는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웠다. 세상에 스트레스 없이 나오는 좋은 논문이 어디 있겠는가? 열악한 환경에서 기기를 하나하나 손수 만들다 보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일면 일리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인 마인드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신중히 배려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스트레스가 미덕이 될 수 있다고 학생에게 강변하는 일부 연구 책임자들에게 이는 좋은 핑계거리다. 기실 천재적인 괴짜 과학자였던 파인만이 위 일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짜 활동과 도전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이었을 것이다. 위 일화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개 선생이자 평범한 과학자인 내게도 충분히 좋은 교훈이 된다. “가르칠 수업과 연구 실적”이라는 일종의 의무와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하는” 순수한 즐거움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주대에 온지 벌써 3년 반이 흘렀다. 그 동안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속될 많은 시행 착오와 고민을 통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과학자, 행복한 스승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나마 조금씩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는 선배 교수들이 베풀어 준 유형 무형의 따뜻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학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 부임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나갈 때나 지도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선배 교수들이 베풀 많은 배려는 뒤집어 생각하면 학교 본부의 시스템 안에서 젊은 교수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연구 공간이나 수업 시수에 관한 것이든,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이든, 학교와 젊은 교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필요성과 당위, 그리고 환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학교 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배 교수들이 젊은 교수들에게 베푸

는 배려는 잘 갖춰진 시스템의 기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평범한 선생이자 과학자일 뿐이지만, 과인만큼 농담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중견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또 다른 젊은 교수를 만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자연과학대학 염동일

학교에 처음 부임하는 교수들이 학교에 바라는 것들

이미 학교에 부임한 지 수 년이 지났으나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기억해 내며, 소속 학부의 신입 교수들과의 논의 결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바라는 점들을 적습니다. 저는 그리고 소속 학부 신입 교수님들은 이미 만족되었던 것이나 앞으로 새로 부임하실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임 첫 학기는 강의 부담이나 행정 부담을 줄여서, 학교 시스템에 정착하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신입 교수들이 부임하기 전에 교과목 편성과 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신입 교수들은 선택권이 없이 과목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부터 책임 시수 15학점 중 9학점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 발령의 경우, 최종 발령이 확정되는 것이 2월 중순 이후이므로, 강의를 준비할 틈도 없이 첫 학기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해당 과목을 담당하셨던 교수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처음 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학기 내내 강의 준비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신입 교수들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산업체나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들이므로, 전혀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데, 첫 학기의 강의 부담은 다른 활동에 시간을 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어서야 한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어떻게 학교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나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학교 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제안서나 보고서 등 학교에서도 강의 외에 다수의 행정 업무들이 있는데,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첫 학기부터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거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소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비약이 지나칠 수 있으나, 신입 교수들은 이제 걸음마를 막 뎀 어린 아이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강의나 행정 업무를 배정한다면, 학교 시스템에 연착륙하여 학교 구성원으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학교 행정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학교 행정 업무 처리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학교의 행정 업무 시스템은 일반 회사나 연구소에서 대하던 시스템과 달라서, 신입교수의 경우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인지하기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업무를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 찢찢매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학교 행정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진다면, 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수월해 질 것입니다.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분류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부 혹은 전공 교학팀의 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변경되면 (특히, 행정 조교의 경우, 수개월 사이에 다수 교체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규 직원은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할지 다시 불분명해지기도 합니다. 행정 직원이 보다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고 one-stop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학교 평가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연구 실적에 대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더불어 조교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연구 업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대학원생 확보에 대해 신입 교수에게 우선적

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신임 교원의 경우, 학생들을 대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구실에 대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임 첫 해에 4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서 학생들을 미리 면담하고 대학원 진학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나 신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임 첫 해부터 연구실에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있고, 이 대학원생들과 더불어 연구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넷째, 여자 교수들의 경우, 출산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여자 교수의 경우, 미혼이거나 결혼 초기에 학교에 부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부임 초기에 출산을 겪게 됩니다.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야 하나, 전공의 전문성이라는 대학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출산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출산 휴가 동안의 적절한 체력 보강과 모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개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권리이나, 아직 부임 초기라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공 혹은 학부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대학 익명

모교수의 직장에서의 하루

무심코 달력을 보다 이미 며칠 전 추분이 지났음을 알았다. 요즈음 늘 깨어나는 시각에도 창밖이 어둡다. 여름날엔 알람이 채 울리기 전에 알아서 눈을 뜨곤 했는데 어두운 탓인지 이제는 알람소리를 들은 후 눈을 뜨는 때가 더 잦아진다. 길막힘을 피하기 위해 한가한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 출근을 마친 후 습관대로 노트북을 켜니 밤사이에 쌓인 메일의 목록을 훑어본다. 대부분 그냥 버릴 메일이지만 오늘은 바빠서 참석 못한 며칠 전 서울에서의 학회소위 회의록이 눈에 띈다. 대단한 모임은 아니지만 자꾸 빠지려니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자꾸 빠지면 안 될 텐데.’ 미안하던 답장을 간사에게 보낸다. 수원과 서울 사이의 시간적인 거리는 결코 작지 않다. 대전이나 대구서 오시는 분들보다 알고보니 나보다 더 느즈막히 출발하신 경우도 있다. 서울에 계신 분들께 수원에서 회의하자고 투정을 한번 부러볼 일이다.

잠시 후 밤사이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담당 전공의와 간단한 통화 후 병원으로 건너가 오전 회진을 시작한다. 고령환자가 많고 병원특성상 응급실을 통해 오는 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긴장을 늦추기가 힘들다. 추석 연휴 끝자락이라 그런지 시골에서 내색 않고 혼자 앓다 귀향한 자식손에 이끌려 병원응급실을 찾은 이들이 비교적 많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부족한 농촌의 가을걷이 때문에 굳이 마다하고 먹는 약으로 치료해달라는 어르신들의 성화가 심하다. 몇 년 전 상태가 안 좋

음에도 굳이 퇴원을 고집하시기에 이대로 가시면 생명이 위험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애원 섞인 만류에도 “나락은 내 생명이여”라 고집하시던 촌로의 일갈을 들은 후부터 나는 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애쓴다.

짧지 않은 회진을 마치고 외래진료실로 들어가 초면 또는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환자들과 시간을 보낸다. 응급실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중증은 아니지만 처음 병원에 온 이중 일부는 그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입원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하루중 한 두건은 발생한다. 함께 온 보호자가 있으면 그나마 수월하지만 혼자 온 이들을 설득하기란 만만치 않다.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조금만 말이 길어지다 보면 여지없이 밖에서는 왜 진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오전 내내 계속된 업무 끝에 기운이 빠진 채 다시 방으로 돌아온 후 앉은 컴퓨터 화면구석엔 서울시장선거 공방이 뉴스클립으로 뜨고 그 아래엔 학회지 논문의 클립이 보인다. 논문 목록을 훑어보다 몇 개는 직접 링크를 열어 초록과 본문을 살펴본다. 일전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거절된 지라 더욱 유심히 보게 되는데 지금도 당시 평가자가 투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쉽게 결정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른 잡지로 옮겨 투고한 것은 아직 회신이 없다. 아쉬운 쪽은 나인지라 이번엔 좋게

평가되기를 바라야 할 입장이다.

일정표를 보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강의가 각각 있다. 반쯤 만들다 만 강의록과일을 다시 열어 부지런히 내용을 추가한다. 기쁘게도 이번 강의는 강의 후 적극적인 질문을 하는 이들이 몇 있어 나를 준비하는데 힘이 된다. 한편, 이미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온 전문대학원생들의 강의평가는 나를 신랄한 면이 있어 준비 중 특히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경험을 되살리면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함께 한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함께 에버랜드 한번 가자는 가족의 성화에 며칠 전 그러자고 했지만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제주도가자는 것을 양보한 터라 이마저 안 된다 하면 실망이 클 것 같아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 생각이다. 다만 그전에 투고한 논문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과대학 익명

융합의 놀이터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이다. 여기서는 그가 주목 받는 정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그가 원래 가진 직함,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원장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다. 안교수는 의학, 정보통신, 경영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험을 통해 융합을 실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융합대학원 원장이 되었고, 그의 융합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동감을 얻었다. 그는 모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융합은 3차원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수직적 효율화 모델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합을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안교수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융합을 위한 관계-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듯 하다. 그는 융합이 효율성 기준으로 일사불란한 상하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한 교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아주대학교를 바라본다면, 아주대학교는 융합학문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과체계의 높은 벽에 막혀 있다. 우리학교는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제를 시행하는 있는 대학에 비해 학부 내 교수들간의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또한 학교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모든 학문분야가 한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학부를 넘어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규모 대학보다는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융합교육과 학문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 융합교육과 융합연구는 수평적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학문분야 교수들과의 자유로운 교류는 서로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유

도하고, 그것이 교육과 연구에 반영된다면 융합교육·연구의 내실은 자연스럽게 다져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들이 수평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전공이 다른 교수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 없다. 교직원식당은 식당으로서의 기능밖에 없는데다가, 그것마저도 경제적인 논리(?)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어 교수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들이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거나 멍하니 있을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전공 교수들과도 자연스럽게 목례부터 시작하여 점차 말을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뜨겁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융합교육과 융합연구의 출발점이다.

융합교육·연구에는 물리적 환경에 더하여 다른 장애도 존재한다. 교육과 연구에는 교수들의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하다. 융합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교수는 많다. 그러나 각 전공에서 정통적인 학문분야의 분류를 벗어난 융합교육·연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아 젊은 교수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융합의 새로운 학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계약과 승진의 논문 편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모색과 탐색의 기회인 연구년 조차도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에서 융합의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연구하며, 안정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융합교육과 연구에 대한 학교당국과 각 전공의 격려와 장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문대학 익명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마침내(!) 교수가 되었을 때, 누구나 속 마음엔 자기가 되고 싶은 교수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직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에 그 꿈은 매우 이상적이었다. 이상적인 교수의 모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상적인 교수는 연구실적도 좋아 학계로부터의 평판도 얻는다. 좋은 교수는 물론 연구실적도 좋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도 잘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교수는 연구실적도 좋고, 교육도 잘하는데, 게다가 사회적 봉사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 사회적 봉사 속에는 사회에 지식인으로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대한 봉사부터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에 대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교수가 되고 나서 교수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이상적인 기대들이 얼마나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한지를 실감한다. 게다가 한 명의 교수에게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기대를 거는 사람이 혹은 조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라는 조직이 교수에게 거는 기대,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이 요구하는 기대, 소속 전공에서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

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 결국 한 명의 교수에게는 서로 다른 맥락과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닌 기대들이 쏟아지는 셈이다. 기대를 거는 사람은 한 조직, 한 사람이지만 기대가 걸어지는 한 명 한 명의 신입 교수의 어깨 위에는 수 많은 조직과 사람의 기대가 걸어진다. 당연히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그 버거운 짐에 짓눌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첫 부임하던 순간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힘든 사람은 이상대신 현실을 선택한다. 이상을 지향하는 교수는 좋은 교수가 되려 하지만, 이상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거운 사람은 좋은 교수는 포기하고 욕 안 먹는 교수의 길을 선택한다. 이상적인 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에는 신입교원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다. 비록 그 달라진 조건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투덜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져서 쉽게 말은 안하고는 있지만.

사회과학대학 익명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서울 소재 모 여자대학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새로 부임한 교수가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신교수라 하겠습니다). 여대이다 보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서 호칭부터가 애매하고 존칭을 해야 할지 말을 낮추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XXX학생이라고 말하기를 선택하였고 늘 존칭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신교수는 음흉해.” 이 말인즉슨, 여학생들을 여자로 보기 때문에 존대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더라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안주거리였던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와 닿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에게 말을 낮출 수 없고 일관적이지 못할까 두려워 모든 학생들에게 존대하던 저 또한 지금은 말을 낮춥니다. 말을 낮추게 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낮추게 된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갖는 것은 새로운 것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 유학 시절 2년 남짓 매일 지나다니던 길을 처음으로 차를 타지 않고 걸었던 날, 그날 느꼈던 묘한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잔디밭, 높던 나무들, 그리고 건물들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대학 캠퍼스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문학에서 말하는 ‘시점’의 변화와 비슷한 듯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My’ 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될 무렵, 큰 인지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저 학생은 그냥 몇 학번 누구’에서 ‘저 학생은 내 학생’으로 인지적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이 나도 모르게 그 학생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듯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을 낮추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란 생각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차이인데,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새 학기가 되고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내뱉고 나면 이상하게도 학생들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격히 애정이 생깁니다. 서울 모 여자대학의 선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학생을 학생으로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경영대학 익명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입학처장 김경래

1. 신입생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원인분석은 이루어졌는가?

이제 입시에서 50%이상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경우 선발 방법이 무척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는 교과보다는 비교과, 교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교과의 경우도 지원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야말로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또 특기자전형의 외국어분야와 과학분야는 전체 입학인원의 4.7%를 선발하지만 전공실력, 교과, 비교과 영역을 고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전형, 특기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없다 보니 합격생들의 수능점수도 알 수 없어 정시입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 아주대학교는 지난 90년대 말 대우그룹의 해체와 수도권대학이라는 단점 때문에(서울과 지방의 수험생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로 단지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생 점수가 오르는 학교들이 꽤 있다)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15위권 밖으로 추락했던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가 상승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3위를 함으로써 15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16년부터 대입 지원자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는 신입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특정영역 적용을 통한 정시 나군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현재 아주대학교는 정시 가군, 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2. 신입생 선발 시 지나치게 서울 위주, 외고 위주, 강남 위주의 name value 우선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정책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 서 아주대의 특화된 계획은 없는가?

1번에서 밝힌 것처럼 요즘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서울학생의 경우 가깝기 때문에, 지방학생의 경우 이왕 큰 돈 들여 집 떠나 생활하는 상황이니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곳의 대학에 중복합격을 해 대학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학생들은 더욱 그런 선호도를 보인다. 실제로 최근 3개년 등록자를 기준으로 전

체 등록자 중 서울지역 출신 학생은 14.53%, 경기지역 출신이 50.27%이다. 이중 서울 강남지역 출신학생은 10.23%뿐이고, 나머지는 지방학생이 35.2%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아주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아주대학교에 가까이 사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지역, 그 중에서도 남부 즉,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군포, 과천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대학이 그동안 서울, 외고, 강남위주의 홍보정책을 시행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금년부터 입학처에서는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100개 고교를 중점 고교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3. 입학관련 업무는 입학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거교적인 업무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입학처만의 일로 축소된 느낌이다. 해결방안은 있는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입학관련 업무는 입학처만의 업무가 아니며, 입학처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입학홍보는 단순히 모집요강의 안내가 아니라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를 특정 타겟인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실물의 콘텐츠는 아주대학교의 비전, 교수, 전공, 교육프로그램, 취업률 등 아주대학교 자체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만큼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신입생들을 끌어오기 위한 입학홍보를 위한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는 학교전체가 노력해야만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콘텐츠를 보고 훌륭한 인재들이 아주대학교를 먼저 찾아오게 되면, 또 이런 인재들이 만드는 아주대학교는 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총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 하에 입시홍보와 입학 전형 관리 업무를 좀 더 시스템화 하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스템화란 입학처의 홍보와 전형관리 관련 연간계획을 학기 초에 공지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입학처 행사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간 계획에 따라 각 행사 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식으로 내부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진학지도교사 대상 ‘찾아가는 고교대학연계간담회’의 경우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여 지역별로 연고가 있는 교수들

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학생들의 모교방문행사의 경우도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스승의 날에 시행해 참여도를 높임은 물론이고 서류평가, 면접, 논술채점 등의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여 교수들이 일정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참여도를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부서, 혹은 전공별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면 입학처에 바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학교 올해 가장 큰 홍보이슈는 이국종 교수였다. 이국종 교수의 사진만으로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좋아져서 올해 수시2차 논술고사의 경우 의과대학은 220.8: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7월 신설된 정보통신대학의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이나 아주프론티어장학과 같은 이슈도 입학홍보에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입시는 과학이다. 입학전형별로 배치고사 성적, 평점, 취업률, 취업의 질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입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거두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최근 입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즉, 기획과 분석 기능을 확충하여 생각하는 입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각 전형 별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 분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입시전략 또한 필요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입시결과를 적기에 분석하여 차년도 입학전략에 반영하는 단기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전형이 입학사정관전형이 아닐까 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은 대학 또는 학부의 의지에 따라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입학사정센터에서는 해마다 전형 별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금년도 입시에 반영하여 기존의 러프다이아몬드, 아주리더십, 커리어로드맵 전형을 아주 ACE전형과 커리어로드맵전형으로 단순화 하였고, 수험생들과 진학담당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 하였다. 그 결과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5대1 이상 향상되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 면접도 기초학력과 전공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교과성적보다는 비교과영역에 비중을 두어 선발하는 전형인만큼 대학생활에서도 비교과 영역의 성취를 측정하는 방법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내부

의 과학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입시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험생, 학부모의 동향의 생생한 움직임을 금년도 전형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기획기능과 분석기능을 입학처의 항시 기능으로 확충하여 과학적인 입시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입학사정센터에 기획력과 분석력을 갖춘 입시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충원 요청하고자 한다.

5. 신입생들은 비전을 보고 학교를 선택한다. 그 비전이 명문대 졸업생일 수도 있고, 졸업 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은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대우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대우그룹의 해체로 사라진 뒤, 수험생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 back to the basic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대학의 본분인 '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의 이미지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최근 ACE사업 유치에 따라 융합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수험생들에게 심어주면서 이와 병행하여 충실하게 교육을 시행한 결과 즉, 양적인 취업률, 질적인 취업률 현황과 대학원 진학률, 국제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교육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주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우수한 몇몇 학생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부제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대학이 인원수를 제한하여, 성적이 모자랄 때는 원치 않는 전공을 공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주대학교에는 없다는 점, 복수전공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원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수능확장장학의 경우 수능점수가 요구되는 점수 이상이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제화 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학생 누구나 외국 자매대학으로 파견되며 한 사람 당 두 번씩 기회를 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위 친구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대학임을 강조하며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실속 있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lisani@ajou.ac.kr

소 식

I. 김광섭, 김철환 전임 의장 정년기념 송별연

2011년 1학기에 정년을 맞은 김광섭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김철환 (사회과학부 경제학 전공) 교수회 전임 의장 송별연이 지난 8월 22일 종합관 로비에서 50여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두 의장의 뜻을 기리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이었으며, 안재홍, 이순일 교수의 송사와 감사패 전달, 두 의장의 답사에 이은 연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광섭 교수의 교수협의회 의장 재임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로, 김덕중 총장의 퇴진으로 생긴 공백기에 아주대학교 학내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총장 선임안을 만드는 데 진력하였으며, 교수회와 학내 구성원이 지난해 이사회에 제출한 총장 선임안의 근간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김철환 교수의 교수회 의장 재임기간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로, 정년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교수회 의장으로 마무리하였다. 재단의 법정 부담금 미납 문제를 다루어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사학재단들이 대학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에 앞장섰다. 다음은 두 의장 정년기념 폐에 새긴 문구이다.



감사패

의장 김광섭

교수협의회 의장직을 맡아 아주 학문 공동체가 겪었던 시련의 제 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에 큰 공헌을 하신 교수님의 헌신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수사회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아주대학교 교수 일동

대학정신의 명정(明澄)한 불침번 김 철환을 기리며

시간의 잔인함을 감당하기 힘들 때

노후(老醜)의 손짓을 멀리하고

자취를 감추어 아름다운 노화(老化)를 택한 당신에게

뜻을 같이 하였던 동료 교수들이 헌사(獻辭)하니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전위(前衛)

이제는 든든한 후위(後衛)

2011년 8월 22일 아주대학교 교수 일동

II. 박종구 전 총장직무대행 관련

본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종구 전 총장직무대행이 지난 8월 22일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에 교육대학원에서는 박종구교수의 휴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학교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학교 본부에서는 휴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전 휴직 교수들의 선례를 근거로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휴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 당국은 박교수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고, 명에 응하여 복귀할 시, 일반 교수들과 동일하게 책임시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III. 교수회 후임 의장 선임

2011년 9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교수회 후임 의장 선출투표가 시행되었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사회과학대학 강명구 교수가 의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1년 9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이다.

▷ 투표율: 교수회 투표가능인원 535명 중 359명

(투표율:67.1%) 참여.

▷ 찬성률: 359표 중 찬성 333표(92.8%),

반대 19표, 무효7표.